

코난, 『기록엑스포 2007』에서 디지털 콘텐츠 관련 핵심 기술 전시

(2007년 10월 26일, 서울) 검색엔진 및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(주)코난테크놀로지(대표이사 김영섭, www.konantech.co.kr)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주최로 서울무역전시장(SETEC)에서 처음 열리는 [기록엑스포 2007]에서 기관 및 기업의 각종 콘텐츠를 쉽게 찾고,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유용한 지식자산으로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검색엔진 독크루저(DOCRUZER)와 비디오, 오디오, 이미지,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KONAN DigitalArc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게 된다.

본 전시회에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록관리를 종이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자화,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기록관리의 현주소와 미래의 기록 관리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게 된다.

부대행사로 마련되는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기록관리 기술의 추세와 적용사례가 발표될 것이며, 코난테크놀로지는 ‘통합적인 디지털 콘텐츠 관리’라는 주제로 기존의 다양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자료화, 사료화,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기술 동향 및 솔루션을 소개한다.

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, 의례 등 선조들의 기록물을 통해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, 역대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 중앙부처, 지자체,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인 일기, 편지 등을 모든 기록물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록 관련 종합 축제로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며, 부대행사로는 한지제조, 탁본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을 예정이다.

지난 2003년 국내 최대의 디지털 방송 프로젝트로 평가 받았던 SBS 뉴스 디지털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에 이어 ‘2004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’으로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 받았던 코난은 그 후 국내 주요 방송국은 물론 ‘토지공사’와 같은 공공기업과 일반기업, e-Biz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.

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‘KONAN DigitalArc’는 기관 및 기업 내 방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료화와 웹서비스, 사내 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서비스화할 수 있어 지식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.

###

㈜코난테크놀로지 소개

코난테크놀로지는 형태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순수 원천 기술로 개발한 검색엔진과 미디어 자산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.

1999 년 4 월 설립 이래 대규모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에서부터 공공부문, 기업, 의료, 교육기관, 방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국가에서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 받아 '2004 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. 최근에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검색시장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자료 문의: 코난테크놀로지 마케팅 팀장 김자영 (T. 02. 3469.8553)